



4면

천호성 교육감 당선인 본격 행보

# 전주매일

7면



익산 주얼리 산업, 글로벌 도약 청신호

2026년 6월 5일 금요일 (음 4월 20일) 제398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윤준병(가운데 왼쪽)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선거대책위원장과 당선인들이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민주 전북, 도지사·국회의원·14개 시군 단체장 전원 당선

# “도민의 승리... 전북 대도약 반드시 실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준병)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데 대해 전북도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전북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도정과 시·군정 운영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전북도민 모두의 승리'라며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실현하려는 도민의 엄중한 명령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준병 총괄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성운·안호영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 김의겸·박지원 두 국회의원 당선인, 그리고 조지훈 전주 시장과 김재준 군산시장 등 14개 시·군 단체장 중 권익현 부안군수 당선인을 제외한 모든 당선인들이 대거 참석해 도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전북도지사 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2곳, 14개 시·군 단체장 선거에서 단

윤준병 도당위원장 “지역 발전 향해 힘 모아야 할 때”

이원택 도지사 당선인 “도민께 실질적인 성과로 보답”

한 명의 낙선자도 없이 전원 당선되는 기록적인 성과를 거뒀다

또한, 광역의원 선거에서도 전체 정수의 98%에 달하는 42명이 민주당 후보로 당선됐고, 기초의원 선거 역시 전체 정수의 79%인 158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선출되면서 전북 정치권에서 민주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재확인했다

윤준병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도민 여러분께서 이번 선거에서 보여주시는 선택은 단순한 정치적 지지가 아니라 전북의 미래를 향한 희망과 기대의 표현”이라며 “전북 대도약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달라는 도민의 준엄한 명령을 민주당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논란도 있었지만 결국 도민들께서 민주당을 신뢰하고 전북 발전의 동반자로 선택해 주셨다”며 “도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믿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민심을 받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승리는 민주당 후보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전북의 자존심을 지키고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도민들의 승리”라며 “이제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했던 갈등과 분열을 통합하고 전북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북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성운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도민들께서 민주당에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은 전북 발전을 반드시 이루라는 절박한 요구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며 “당선인 모두가 원팀이 되어 전북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안호영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역시 “선거는 끝났지만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라며 “국회와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전북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하게 된 김의겸 당선인은 “전북도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민주당에 완벽한 승리는 큰 선물을 안겨 주셨다”며 “그러나 이는 자만하라는 뜻이 아니라 전북 발전을 위해 더욱 치열하게 일하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당선인도 “도민들은 민주당이라는 배를 선택했지만 언제든 오만해지면 심판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보내주셨다”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겸손하게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은 “전북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당선인은 “현대자동차 그룹 정의선 회장의 9조원 새민금 투자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피지컬 AI 산업생태계 구축, 금융중심도시 조성,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남원 국립의전

원 설립 등 전북의 핵심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전북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도민 주권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도정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전북의 미래 성장전략을 새롭게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제와 산업뿐 아니라 문화와 복지, 삶의 질 향상까지 전북의 모든 분야를 한 단계 끌어올려 도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과 후유증을 조속히 수습하고 원팀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위원장은 끝으로 “도민들이 보내준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선거 기간 약속한 모든 공약을 실천해 전북 대도약이라는 결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토·일요일신문 쉽다

## 순천완주고속도로 임실~상관IC 익산방향 9일부터 이틀간 차단

도공 전북, 교량·터널  
보수공사 집중 시행키로  
국도 17호선 우회 당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이하 도공)가 순천완주고속도로 임실IC~상관IC 구간 익산방향 차량 통행을 이틀간 전면 차단하고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를 실시한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6월 9일 오전 6시부터 10일 오후 4시까지 순천완주고속도로 임실IC~상관IC 구간 익산방향을 전면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노후화된 교량과 터널 시설물을 집중적으로 보수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간 반복되는 부분 교통통제로 인한 이용객 불편과 차량 정체에 따른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해당 구간에서 예정된 32개 보수공사를 개별적으로 시행할 경우 약 42일간 교통통제가 불가피하지만, 이를 통합해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반복적인 차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전면 차단 기간 동안 익산방향 차량은 임실IC에서 고속도로를 빠져나온 뒤 국도 17호선을 이용해 상관IC로 재진입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운전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교통방송과 도로전광표지판(VMS)을 통해 우회도로와 교통상황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객들은 로드플러스 홈페이지와 고속도로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공사는 장기간 반복되는 차단공사를 줄이고 노후 시설물을 단기간에 보수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공사 기간 동안 다소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운전에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 기초의원 당선인  
명단 www.jjmaeil.com 참조

IMSIL-GUN  
임실군

# 천만관광 명품도시 이제임실